



## 가난한 이들의 삶을 카메라에 담아온 사진작가 최민식

다큐멘터리 사진작가 최민식은 1957년 독학으로 사진을 익혀 평생 '인간'을 소재로 한 사진을 찍어왔다. 1962년 대만국제사진전 입선을 시작으로, 미국·독일·프랑스·영국 등 20여 개국 사진공모전에서 220점이 입상·입선되는 등 세계적으로 반향을 일으켰다. 1968년 사진집 <인간> 1집을 낸 이후, 지금까지 14집까지 펴냈다. 현재도 자갈치시장, 용두산공원, 인도, 네팔 등에서 활발한 사진 활동을 펼치고 있는 그는 늘 가난한 이들과 함께 있다.

글 | 임남숙 차장 sang@print.or.kr

### 약력

1928년	3월 6일 황해도 연안에서 출생
1956년	일본 밀항, 인쇄사 근무
1957년	사진 시작
1962-1987년	국내외 각종 사진전시회에서 입상 및 입선
1967-1987년	영국, 일본, 서독 등의 사진연감에 수록
1973년	미국사진협회상 우수상 수상
2000년	대한민국 옥관문화훈장
2008년	국민포장
2010년	<인간> 14집 출간
2011년	현재 부산 거주

### 종이거울 속 자화상

가난했던 초등학교 시절, 남의 땅에 농사를 지어 1년 소작료 내면 그의 일곱 식구는 7개월밖에 살지 못했다. 남은 5개월은 몰래 남의 밭에 가서 감자를 캐오고, 산에서 나무를 해다가 시장에 팔았다. 그의 아버지는 다리를 짊어 힘든 농사일은 어머니와 그의 몫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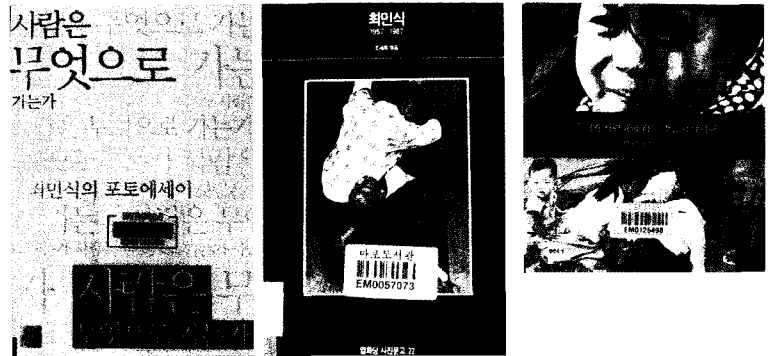
그러던 중 그림을 잘 그린다는 아버지의 말에 힘입어 열다섯에 집을 나왔다. 일제시대였던 당시 비행기 날개 만드는 군납업체 기능자 양성소에 들어간다. 하루면 작업복이 닳아버리는 무서운 염소가스를 다루면서도 그는 그림에 대한 꿈을 키웠다. 해방 후, 밤에는 미술학원에서 그림을 배우고 낮에는 돈을



1. 부산 자갈치시장 1969
2. 부산 자갈치시장 1965
3. 부산 광복동 1964
4. 서울 용산역앞에서 1957



4



#### 참고문헌

사람은 무엇으로 가는가 : 최민식의 포토에세이, 최민식, 도서출판 하다, 2010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것들에 대하여, 최민식 조은 지음, 샘터, 2004  
최민식(1957-1987), 조세희 엮음, 열화당 사진문고22, 1996

별었다. 지게꾼도 하고, 고구마 장사도 하고, 과자공장에서 일도 했다. 그나마 편했던 일이 인쇄사에서 도안을 그렸을 때다.

그러다가 스물여덟 살 때 일본으로 밀항했다. 낮에는 식당, 인쇄사에서 일하고, 밤에는 미술학원을 다녔다. 그러다가 도쿄의 한 헌책방에서 우연히 <인간가족>이라는 사진집을 보게 된다. 이 사진집은 사진작가 에드워드 스타이켄이 세계 각국의 사진들을 모아 인간의 생로병사와 희로애락을 표현한 책이다. 그는 이 사진집을 계기로 인간에 대한 사진을 찍기로 결심한다.

#### 허름한 옷차림에 간첩 오해도

사진에 빠진 그는 친구 여섯과 함께 독학을 했다. 낮에는 리어카로 냥마주이까지 하면서 밤에는 사진에 몰두했다. 서른 살, 그는 낡은 사진기와 사진집 몇 권을 들고 다시 밀항선을 타고 한국으로 돌아와 본격적인 사진가의 길을 걷는다. 그는 자신의 자전적 에세이 <낮은 데로 임한 사진>에서 그 길을 이렇게 표현했다.

“쌀을 사 놓으면 연탄이 떨어지고 연탄을 들여놓으면 쌀이 떨어지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집

도 팔아야 했기에 밤에만 수돗물이 나오는 달동네에 살기도 했다”

#### 최민식만의 사진 <인간>

그의 사진엔 가난한 이들의 남루한 일상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거리 모퉁이에서 호옥 숨 한번 쉬고 국수발을 빨아올리는 어린 여자아이, 단지 살아남기 위해 이중 삼중 빼회는 노동을 해야 하는 여인, 조국의 변명을 말하는 선거벽보 밑에서 이제 막 잠이 든 가난뱅이, 집도 없고 돈도 없고 당장 먹을 것도 없어 골목어귀에 쪼그리고 앉아 그대로 죽고 싶은 빈민가장들이 그의 사진속의 주인공이다.

그의 사진속의 주인공은 <인간>으로 이어진다. 1957년에 사진을 시작해 10년이 넘는 1968년에야 처음 <인간 1집>을 낸다. 그리고 1999년 <인간 10집>을, 2010년 10월 <인간 14집>이 발행됐다.

하지만 어두운 사진을 주로 찍다보니 박정희 시대엔 고초도 많이 겪었다. 정보부에 여러 번 끌려가 “왜 하필 가난한 사람들을 찍느냐. 복을 이롭게 하려는 거 아니냐?”는 서슬퍼런 추궁에 시달리기도 했다.

#### 민간 기증기록물 1호로 지정

최민식은 2008년 자신의 사진작품 원판 10만여 매와 국내외 사진집, 연구책자, 인화사진, 자서전 원고, 사진기자재 등 관련자료 3만여 점을 국가기록원에 기증해 ‘민간 기증기록물 1호’로 지정됐다. 기증 자료는 1957년부터 현재까지 서민들의 생업, 의복, 풍습, 생활공간 등 당시의 시대상을 생생하게 엿볼 수 있는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

<최민식을 끝으로 세계의 인쇄인은 연재를 마칩니다>